

현대무용단

※ 본 공연은 '9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창작  
지원금을 받아 공연됩니다.

지오 Zoom

Modern Dance Group "Zoom"

“청소년을 위한 공연”

표류

7월 12일 오후 2시  
덕명여자중학교,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강당)

7월 16일 오후 5시  
광안리 해변가(바다경찰서앞)

- 주 최 : 현대무용단 주-□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공연문의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051-620-4961)  
남천동 ZOOM스튜디오(051-627-4386)

## 인 사 말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얼굴 만큼 7월은 생동감 넘치는 계절임을 실감합니다.  
저희 현대무용단 주-미은 청소년들을 위한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95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소망하여 왔던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공연예술을 통해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보탬을 주며  
또한, 바람직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키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대무용단 주-미은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무용공연을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수 있도록 곁에서 늘 노력하는 창작예술단체가 될것을 약속드리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청소년 여러분들께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대표 강 미 희

현대무용단 주-미은  
보다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무용공연을 통해  
종래의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작업에서 벗어나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무용프로페셔널리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다른 부산의 무대예술형태를 가꾸고자 하는 취지로  
88년도에 창단한 무용동인 단체입니다.

• 예술감독 : 남정호 • 기획 : 이은경, 오정화 • 무대감독 : 조미옥 • 음향 : 곽선영 • 사진 : 권봉하

## 표 류

- 안무 : 강미희
- 대본 : 강미희
- 음악 : PATRICK OTHEARN 외
- 미술 : 정만영
- 출연 : 강미희, 이은경, 조미옥, 오정화, 이금화, 허선헌, 강미라, 홍경민, 이세진, 윤유정, 문라옥, 이수지, 노연경, 정현진, 신승민
- 내용 : 무언가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들은 아지랑이 속에서 처럼 희미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또렷한 모습으로 보일때, 그것은 나무와 사람이다. 그것은 또, 하나일수도 있다. 우리가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은 새로운 기다림의 출발점이다.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는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그리움 일수도 외로움의 몸부림 일수도 있다. 길위에서 표류하는 나무와 사람들이 몸짓에서 우리는 그리움의 정점위에서 떠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

## Cleaving(헤쳐나감)

- 안무 : 조 미 옥
- 음악 : STARKER PLAYS KODALY 中에서
- 내용 : 이 작품은 1994년 제7회 부산 여름 무용축제 WORKSHOP의 강사로 초대되었던 미국무용가 SALLY HESS로 부터 배운 움직임들을 토대로 재구성 해본 작품이다.

## 추(錐)

- 안무 : 강 미 희
- 음악 : Sound Sculptures
- 내용 : 맨 먼저 부재 상태인 것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기억속에서 오고 가고 있다. 알수 없는 공허한 공간 속에서 만나고 있다. 소리, 잡혀지지 않는 것으로 부터 느낌을 찾아가는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 된다.

## 버리세요

- 안무 : 곽 선 영
- 출연 : 오정화, 강미라, 김현미, 윤유정, 안영준, 정현진
- 음악 : Khalid Saleen & Beverly Botsford Siegfried Fink/beat the beat
- 내용 : 때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 양껏 먹어 치운 찌꺼기가 이빨사이에 끼어 날 괴롭힌다. 이쑤시개로 이빨 사이를 공들여 헤쳐도 꼴스럽기만 하다.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온몸을 활활 태워 버렸으면 싶다. 내 머리속의 그 자질구레한 지식과 그물코 같은 생각을 바라보면 어느곳 하나 찌꺼기 없는 곳 없고 태가 낀 내벽엔 벌써 굳어버린 신경으로 어둠이 피고 있다. 가슴이 막막한 이 찌꺼기의 욕망을 어서어서 버리고 싶다.